예수님께서 신약 시대를 여신 이후에 인류 역사를 가장 크게 바꾼 사건은 주후1 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이다. 1000년 동안의 중세 암흑시대에 온 유럽을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하던 교황청의 절대적 권위가 무너졌다. 교황청의 권위에 도전한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개인의 영혼의 자유, 인권, 자본주의의 윤리를 확산시키면서 산업혁명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치관으로 뿌리내렸다.

마르틴 루터(주후 1483-1546)

주후 1521년, 독일 황제의 소환을 받고 보름스 제국 회의에 가는 것을 막으려는 친구들에게 루터가 한 말과 거기서 유래된 찬송가

비록 저들이(교황권 세력) 체코의 얀 후스는 불태웠을지 몰라도 진리는 불태우지 못했소. 보름스에 저 지붕 위의 기와만큼이나 마귀가 많다 해도 나는 가겠소.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왕국 영원하리라(찬송가 384장 3절)

보름스 제국 회의에 참석한 황제와 제후들은 그에게 간단한 대답 하나만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그의 개혁 사상을 철회하고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루터는 그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다.

종교개혁은 내가 고안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사주를 받아 일으킨 것도 아니며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교황이나 공회들도 반복적으로 실수를 범하며 자가당착에 빠진 것을 나 자신이 목도하였으므로 나는 교황이나 공회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경 기록에 의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경기록의 증언이나 명백한 이유에 의해 나 자신이 확신을 갖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는 안전하지도, 합당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나이다.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God help me. Amen.